

e모빌리티기업 5개사 영광 대마산단에 643억원 투자

전남도 5개사와 투자협약식

2022년까지... 238명 고용 창출
대풍EV자동차 전기차 첫 수출
정세균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

수도권과 대구·부산에 기반을 둔 e-모빌리티 기업 5개사가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643억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영광에 공장을 둔 ㈜대풍EV자동차는 필리핀-베트남-이집트 등과 삼륜형 전기이륜차 3185만 달러(1만5500대) 수출계약을 체결, 이날 첫 수출을 시작했다.

2018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신규 투자와 생산품 수출이 이어지면서 영광지역을 미래형 이동수단인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전남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17일 영광 대마산단 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에서 e-모빌리티기업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계호 국회의원,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을 방문한 정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 협약은 전남도와 영광군, ㈜KST 일렉트릭(서울 소재), ㈜성지이테크(수원), ㈜코리아이테크(대구), ㈜DS이노베이션(부산), 마스터전기차(서울) 등 투자기업 5개사가 이뤄졌다.

이들 e-모빌리티 기업 5개사는 오는

2022년까지 e-모빌리티 생산을 위해 영광에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기로 했다.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을 이용해 생활교통과 물류배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준성 영광군수도 기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영광에서는 e-모빌리티 기업인 ㈜대풍EV자동차의 첫 수출 기념식도 열렸다. ㈜대풍EV자동차는 삼륜형 전기이륜차 'Echo-ev'를 필리핀과 베트남, 이집트 등에 3185만 달러(1만5500대)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첫 수출을 시작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수출 기념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풍EV자동차 해외수출은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e-모빌리티 시장확산도 전라남도가 주도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e-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 스마트 미니셔틀 실증 사업,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등에 e-모빌리티의 국비 보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도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투자협약식 축하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자"고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했다. 행사지역인 영광이 이 전 총리 고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정 총리는 축하사에서 "이 전 총리님께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을 제가 대신 왔다. 이 전 총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영광 대마전기자산업단지 내 대풍EV자동차 공장에서 필리핀 수출 개시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는 영광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광 대마산단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중심지로 지난 2012년부터 전남도가 e-모빌리티 산업인프라를 착실하게 다져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 이모빌리티협회 공동연구시설, 실외테스트베드, 충돌시험장, 사용자 경험 랩셋 등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다. e-모빌리티 개발부터 인증,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전(全) 주기 기업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현재 ㈜캠시스(초소형전기차), ㈜대풍EV(전기이륜차), ㈜시그넷시스템(중전기) 등 13개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입주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9개 기업이 공동연구시설에 입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에 참가해 e-모빌리티 주행실증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240억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기업 혁신 공간을 마련하고, 미래형 이동서비스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문 대통령 "연락사무소 폭파 충격 북한과 대화노력 계속 하겠다"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남 비난 및 군사행동 위협과 관련한 분석을 공유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하는 등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현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도에 지나친 것 같다"면서도 "저보다 국민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내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

이면서도 "지금은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의 변화없는 태도 그리고 별다른 진전없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실망감이 깊어가는 차에 북한체제를 강력 비난하는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이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태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점과 대북 특사 파견의 적절성 등을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이전

에 추진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7) 수국

수국이 만발한 꽃밭 앞에 한 소녀가 앉아 있다. 수국도 예쁘고 소녀의 모습도 너무 귀여워 자세히 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본다. 행복한 한 때의 애뜻한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던 화가아빠의 사랑이 느껴진다.

현재 이강하미술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인 '푸른 상처, 별의 공전'에 전시중인 이강하작가

광주의 아픔 어루만져 주는 '5월의 꽃'

(1953~2008)의 작품 '기다림' (1987년 작)을 처음 본 순간, 어린 딸아이의 예쁜 모습을 포착해 그렸을 거라고 지레 짐작했다. 때 마침, 요즘엔 어디서나 자주 만나게 되는 수국이 반갑고 그림 속 딸아이도 아는 얼굴이라 더 친근하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이런 감상과는 달리, 이강하작가는 단순한 어린 딸의 초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월의 아픈 시기를 보냈던 광주사람들은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흐드러지게 피는 수국을 보면서 광주 아픈 오월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담았던 것이다.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군으로 참여했었던 이강하작가는 생전에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작품도 미니미술계열의 사실주의 리얼리즘 표현방식이 아니라 은유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해왔다. 이 작품 역시 어린 아이가 두 손을 얼굴에 괴고 뚝뚝뚝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더 나은 미래, 자유와 평화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지를 상징화했던 것이다.

이강하미술관의 이선 학에서는 "작가가 무등산에 비단길을 깔아서 금강산과 백두산까지 있는 이미지로 통일을 염원했던 것처럼 5월이면 또 다시 겪어내야 하는 마음의 명을 수국으로 기억하고자



이강하 작 '기다림'

했다"고 설명한다.

꽃 한송이만으로도 그 어떤 화려한 꽃 다발을 능가할 만큼 수북하고 시원스런 수국이 오늘을 색다른 의미로 마음에 머문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